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협상 '기본 윤곽' 합의

샐리번 美 백악관 보좌관 "수일 내 확고하고 최종적인 합의 도달 희망" 네타냐후 "라파 공격 결국 할 것"...하마스측 가자 점진적 철수 등 수용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간 휴전 협상의 기본 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언제 최종 타결로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하마스가 협상안에 동의해야 하는 데다가 베나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합의가 이뤄져도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 대한 군사작전을 감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회의적 시각도 감지된다.

제이크 샐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5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간 휴전 및 인질 석방을 위한 4개국 협상과

관련, "이스라엘, 미국, 이집트, 카타르 대표들이 임시 휴전을 위한 인질 협상의 기본 윤곽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샐리번 보좌관은 이날 CNN, NBC 방송 등에 출연, "그것(협상안)의 구체 내용을 도출하기 위한 측면에서의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미국,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등 4개국은 프랑스 파리에서 인질 및 휴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샐리번 보좌관은 "궁극적으로 하마스가 인질 석

방에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카타르와 이집트를 통해 하마스와 간접적인 토론도 있어야 한다. 그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라면서 "향후 수일 내에 이산에 대한 확고하고 최종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휴전이 내키지 않는 듯한 네타냐후 총리와 그를 떠받치고 있는 극우세력의 행보는 변수로 떠오른 모양새다.

하마스 궤멸 전까지는 휴전은 없다고 공언해온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압박에 협상장에 나오기는 했지만 라파 진격의 뜻을 꺾지 않는 등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25일(현지시간) 미국 CBS 방송의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협상이 이뤄질 경우 그것(라파 공격)은 어느 정도 미뤄지겠지만, 결국 하게 될 것"이라면서 "협상이 불발될 경우 우

리는 어찌 됐든 그것을 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또 라파 민간인 대피를 위한 행동 계획과 함께 하마스를 해체하는 계획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인질 석방 및 휴전 협상에 대해서도 "하마스가 '망상적인 주장'에서 벗어나 현실적으로 되면 우리가 원하는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하마스는 말이 안 되는 요구로 (협상을) 시작했으며 아직 그것을 포기했다고 말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 소탕을 가자지구 군사작전의 목표로 내세웠지만, 하마스가 여전히 견제한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가자지구 민간인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휴전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인질 구출 작전 역시 별다른 성과가 없어 이스라엘 국내 여론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하마스에 잡혀간 인질 250여명 가운데 100여명은 지난해 11월 임시 휴전 때 풀려났지만 130여명은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 가운데 30여명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마스의 경우 전투 중단 기간, 합의 첫 단계에서 풀려날 팔레스타인 수감자 수,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점진적 철수 등에 대해 유연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협상 중재자들 사이에서 전해진다.

하마스는 또 영구 휴전 요구를 철회하고 대신 영구 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후 단계의 협상을 받아들일 용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일부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 등은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이집트 당국자들이 전했다. /연합뉴스



헤일리 5연패에도 "경선은 계속" 니키 헤일리 전 미국 유엔주재대사가 25일(현지시간) 미시건주 트로이에서 27일 열리는 이곳 프라이머리를 앞두고 유세에 나섰다. 헤일리는 지난날 아이오와와 뉴햄프셔, 이달 네바다와 버진아일랜드에 이어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진행된 5차례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큰 표 차로 연패했다. /연합뉴스

트럼프, 5연승 '대선행 썰기'

CNN·AP통신 등 미국 언론 개표 시작 직후 트럼프 승 예측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레이스의 승부처 중 하나로 꼽혀온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경선에서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일 경쟁자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를 누르고 5연승 가도를 달리며 대선행 티켓을 사실상 굳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실시된 공화당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개표가 99% 진행된 가운데 59.8%의 득표율로 39.5%에 그친 헤일리 전 대사를 여유있게 따돌렸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배정된 대의원 50명 중 최소 44명을 가져갈 것으로 미 CNN 방송은 전망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경선 전체 승리자가 대의원 50명 중 29명을 가져간 뒤 나머지는 7개의 각 하원 선거 지역구 별로 승리한 후보에게 3명씩 할당된다.

앞서 이날 오후 7시 경선 투표가 마감되자마자 CNN과 AP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출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를 예측해 보도할 정도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낙승을 거뒀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월 아이오와와 뉴햄프셔, 이달 네바다와 버진아일랜드에 이어 사우스캐롤라이나까지 진행된 모든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며 5전 전승의 기세를 이어갔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헤일리 전 대사의 고향으로, 헤일리가 이곳에서 주 하원의원과 주지사를 지냈다는 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는 큰 의미를 갖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개표 시작 5분만에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선거 본부에서 승리 연설에 나서 "이것은 기록적인 승리"라며 자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11월 5일 대선에서

도 승리할 것"이라며 "조 바이든의 눈을 바라보고 '당신은 하고다. 나가라'고 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워싱턴포스트(WP)는 아이오와·뉴햄프셔·네바다·사우스캐롤라이나 등이 경선 조기 개최 4개주로 정착한 2008년 이후 현재 대통령이 재선 도전에 나섰을 때를 제외하고 한 후보가 4개 경선 모두 승리한 것은 민주당·공화당 양당 통틀어 트럼프가 처음이라고 전했다.

반면에 헤일리 전 대사는 중도층의 지지세를 얻으며 한때 트럼프를 바짝 추격했던 지난달 뉴햄프셔에 이어 "정치적 뒷받침"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도 패배를 당하면서 레이스 초반 '반전'의 양대 기치를 모두 소진했다.

그러나 헤일리 전 대사는 이날 개표 도중 지지자들 앞에서 행한 패배 승복 연설에서 "후보 한 명이 나서는 소비에트식 선거는 안 된다"면서 "다수의 미국인이 도널드 트럼프와 조 바이든을 지지하지 않는 이 때 나는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선 지속 참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캘리포니아(대의원 169명)와 텍사스(대의원 161명) 프라이머리를 포함해 16곳 경선에서 전체 대의원의 약 36%인 874명의 향방이 결정되는 '슈퍼 화요일'까지는 경선에 계속 참여한 뒤 다음 행보를 결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선의 승패는 이미 결정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헤일리 후보가 경선 참여를 이어가는 것은 4건의 형사 기소를 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변수가 남아 있는 점, 향후 자신의 대선 재도전 가능성을 감안한 존재감 부각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공화당 양당은 주별 경선을 마친 뒤 공화당은 7월 15~18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민주당은 8월 19~22일 시카고에서 각각 전당대회를 열고 대선후보를 공식 확정한다. 대선은 11월 5일에 치러진다. /연합뉴스

젤렌스키 전사자 첫 공개...“우크라전 2년 간 3만 1000여명”

서방 추정 수치보다 적어 승리 위해 “지원 해달라” 당부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러시아와 2년간의 전쟁에서 자국 군인 3만 1000명이 전사했다고 밝혔다고 AFP,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자국군 사망자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수도 키이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발표하면서 "푸틴과 그의 거짓말쟁이들이 말하는 30만명이나 15만명은 사실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각각의 죽음은 우리에게 거대한 손실"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모두 적국이 사망자 수자를 선전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자국군 병력 손실 규모를 기밀로 다뤘었다. 그동안은 주요 외신이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군 사망자 수를 추정해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밝힌 군 사망자 3만 1000명은 러시아가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수치는 물론 서방이 추정했던 우크라이나 병력 손실 규모보다 크게 적다.

앞서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11월 "미국 관리들은 우크라이나 군인이 최소 7만 명 사망하고, 12만명이 다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작년 8월 러시아군 사상자가 30만명, 우크라이나군 사상자가 20만명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도한 바 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지난달 "작년(2023년) 한 해에만 우크라이나의 병력 손실은 21만 5000명"이라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이날 자국의 승리가 서방의 지원에 달려 있다고 말하면서 미국 의회에 우크라이나 추가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600억 달러(약 79조 9500억원)의 군사원조가 전장에서 자국군 운영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예산안은 미국 상원을 통과했으나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지지 못하고 있다. 야당 공화당 내 강경파들이 다른 의제와 연동해 협상하려고 어깃장을 놓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